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5월 10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창 2:20-25, 엡 6:1-4

제목 : 창조주 하나님 · 위탁받은 인생(2)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① : 가정을 세우신 뜻”

말씀 :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6:1-4)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

사님 한 분이 전주 금요일 오전 12시가 좀 안된 시간에 카톡과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배란다 실외기 밑에 알을 낳았어요. 우린 비둘긴 줄 알았는데 야생동물 썬타에 알아보니 황조롱이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이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4월 11일 보니 알을 여섯 개 낳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 잘못 건드리면 야생동물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5월말까지 어미가 키워서 데려가도록 놔두고 보라 했습니다. 잘 못되면 안 되니까 곁에 가기가 무서워요.”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잘 관찰하세요. 어미가 데려 갈 때까지 코로나19로 인간들이 힘들어 하는데 자연은 순리대로 살아가네요. 신비하게도~ 누구나 경험 못 하는 복입니다.” 답이 왔습니다. “정말 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는 게 가슴 저리고 슬펐어요. 가족들의 삶속에 일터에 그리고 태국에 가 있는 딸의 가정이 코로나로 힘 들었는데 1주일만에 한번 씩 영상통화로 서로를 위로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조롱이 땀에 온 식구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좋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답이 왔습니다. “아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어미와 함께 있는 사진, 부화하는 새끼들 모습) 어미 황조롱이의 눈이 그리고 무늬가 너무 예뻐니다. 어찌 이렇게 눈이 맑을까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태어난 새끼들 모습입니다. 어린 하얀 털이 후에 자라면서 어미처럼 아름다운 무늬의 털로 바뀐다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다음에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새끼들이 부화하는 모습을 실외기 밑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김선례 권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전전주엔 윤지영 집사가 원장으로 일하는 판교의 5층 어린이집에서 까치가 부화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내 주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정말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의 아름다운 모습과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하시 지?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위탁받은 인생이란 주제로 5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제가 듣기를 원하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우선 들린 음성은 이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비록 코로나 19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 변함이 없이 오고 있으니 그 말로 위로하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속에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조롱이도 선하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듣는 음성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까치, 황조롱이 가족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이런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켰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파괴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내온 소식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실외기 밑에~ 태어난 황조~롱 새끼~들 그 모습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동산을 다스리라는 전폭적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임받았다. 또는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그 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교회 가정 국가 노동 (문화 자연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주는 교회에게 주신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인류 최초의 사회적 기본 조직입니다. 인간 몸으로 말하면 세포입니다. 세포조직이 아름다워야 몸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처럼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온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잘 양육하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정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번 창18:19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가정에게 주신 질서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일 해야 할 일들과 연관지어서 3가지 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보다 더 우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자식이 없어도 부부로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질서대로 지켜나가면 가정도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반대로 사회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이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지켜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 남편의 머리는 주님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주님과 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엡5:23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라는 말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가장인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라는 말입니다. 가정의 무거운 영적인 책임입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장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히 족장들 시대에는 가장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사이에 지킬 질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먼저 아내들이 지킬 도리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종하라고 표현했습니다.

헨리 나우웬(1932-1966)의 <예수의 길>이란 책이 최근에 출판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잘 견딘 청년들에게 위로 선물로 구한 책입니다. 1985년도 사순절 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강연한 여섯편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도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웬은 <순종이란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온몸으로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순종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따르라는 말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내 의견과 좀 맞지 않은 면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먼저 아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즈음처럼 남녀평등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시대이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주장할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평등도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사회를 구성하는 곳에는 질서와 조화 아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내가 너무 강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온유함과 마음의 평안을 늘 갖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이상하게 남편들은 다 그런 아내의 말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순종하면서 결국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제목이 <아내>라는 시입니다.

소파에 길게 누워 잠 들었을 때 /이불을 덮어 주는 여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과일을 깎는 여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잠자지 않고/집에서 기다려 주는 여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이제는 늙어버린 여자

<아내 없는 날>
공연스레 허둥된다 /집안이 갑자기 더 커진 것 같고/
영똥한 짓을 하기도 한다.
몸에 좋지 않다는 라면을 /끓여 먹는 날도 이런 날이다.
(하여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라면 먹지 말라, 고 잔소리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가 봅니다.)
애뜻한 아내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읽어지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내를 향한 남편이 지킬 도리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란 원어의 의미는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운 질그릇>을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격한 말에 감정에 상처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긴다.>는 의미는 <가치 있게 여긴다.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내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아내를 위하여>
그대를 꽃이라 부르면 /그대도 꽃이 되고 /나도 따라서 꽃이 된다. 이거 하나 알기에도/ 우리에게겐 70년 시린 /강물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시대의 문제는 사탄이 이 부부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 생각납니다. "사탄은 마침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슬그머니 전염을 시켰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을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잘 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부부는 가정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아시고 잘 지켜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질서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엡6:1-3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간에 문제가 일어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자녀의 삶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간은 또한 잘 보호하면 회복이 잘 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될 까요? 답은 확실합니다. 효도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왜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보문에서 사용된 <옳으니라>는 의미는 <정당하고 옳바르고 정상적인>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있음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인고의 세월을 말없이 보내셨습니까? 정말 간이 지쳐가면서도 아무 징조도 없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간이 아프다는 신호가 오면 정말 큰 일 입니다. 그런 신호가 오기 전에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2: 24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라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려가면서 애프터서비스까지 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 엄마들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임신을 하니까 친정부모가 시부모가 뭐 해줬다. 얼마 줬다, 자식을 낳았는데 병원비 수술비 다 대 주었다. 그런 것을 말하고 다닙니다. 부모님 귀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듣는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참 부담이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해 주었다는 데 안 해 줄 수도 없고요...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유머도 나오겠습니까? 5-6년 전에 유행하던 유머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부분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 순서대로 5가지는? 한번 아시는 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남편은 이 순서에도 없어요)
남자가 늙어 필요한 것 5 가지는? 한번 아시는 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아들을 많이 둔 엄마는 이집 저집에서 안 모시려 해서 아들 집 왔다갔다하다가 하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에서 일하다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손주들에게 있어서 돈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머입니다. 재산 안주면 어떻게 되요? 아시는 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쫓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참 슬픈 세상적인 세태를 빙자한 유머입니다. 세속적으로 사는 자들이 지어낸 유머입니다. 부모가 된 게 겁니까? 정말 이걸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기독교 가정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이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서 지킬 마지막 질서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비난과 책망으로 자식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 복수의 감정 증오의 감정이 쌓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곳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물들어 가도록 부모님들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지에 잉크가 떨어지면 서서히 온 종위에 말없이 먼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에 그렇게 물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기독교 가정은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위탁받았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게 주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니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써 주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되고 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 그 노여움은 어른이 되어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평생 가슴에 남아 있다가 언제 어디서 폭발 할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조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 가정만이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주신 이 질서를 잘 지키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 즉 다스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금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